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사회탐구영역 **윤리와 사상** 정답 및 해설

01. ④ 02. ① 03. ② 04. ③ 05. ② 06. ③ 07. ③ 08. ③ 09. ⑤ 10. ⑤
 11. ④ 12. ⑤ 13. ③ 14. ② 15. ④ 16. ④ 17. ⑤ 18. ① 19. ② 20. ⑤

1. 석가모니가 강조한 삶의 태도 파악

정답 해설 : 가상 대화의 스승은 석가모니이다. 석가모니는 모든 사물과 현상이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으며[因緣法], 만물의 이러한 상호 의존성과 관계성을 깨닫고 모든 생명의 소중함과 자비(慈悲)의 실천을 일깨워 주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자연을 법칙 삼아 도(道)를 따르는 소박한 삶을 강조한 주요 사상가로 노자가 있다.
- ② 충(忠)과 서(恕)의 실천에 의한 인(仁)의 완성을 추구하는 삶을 강조한 사상가는 공자이다.
- ③ 사사로운 욕망을 이기고 예(禮)를 실천하는 삶을 강조한 대표적인 사상가는 공자이다.
- ⑤ 의로운 일을 꾸준히 쌓아가는[集義] 도덕적 삶의 실천을 강조한 대표적인 사상가는 맹자이다.

02. 홉스와 로크의 사회 사상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홉스, 을은 로크이다. 홉스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 상태인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사회 계약을 통해 국가가 형성된다고 보았다. 그는 자연 상태에서는 정의나 법적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이러한 정의나 의무들은 자기 보존을 위한 권리의 양도를 통해 발생한다고 보았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② 홉스는 주권자는 인민과 맺는 사회 계약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 ③ 로크는 자유, 생명, 재산 등의 자연법 준수의 의무는 사회 계약 이후에도 준수해야 할 의무라고 보았다.
- ④ 로크는 입법부의 입법 권력은 신탁(信託)에 의한 것이므로 시민에 의해 교체 가능한 권력이라고 보았다.
- ⑤ 홉스와 로크 모두 개인의 모든 권리가 사회 계약의 성립과 함께 동시에 부여된다고 보지 않았다.

03. 위정척사 사상과 동학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위정척사 사상, 을은 동학 사상이다. 위정척사 사상은 유교적 가치 체계와 질서가 ‘올바른 것[正]’이므로 지켜야 할 것을, 서양과 일본의 문물은 ‘사악한 것[邪]’이므로 배척할 것을 주장한다. 위정척사 사상가 이항로는 사학(邪學)인 서학을 막기 위해 먼저 그들과 통하는 자를 처벌하고, 화색(貨色)의 욕구를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학 사상은 모든 사람은 자기 안에 한울님을 모시고 있다는 ‘시천주(侍天主)’를 주장하며, 이를 위해 수양론으로 ‘수심정기’와 ‘성경신’을 강조한다. 동학 사상은 유불도(儒佛道)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① 동학 사상은 모든 규범을 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 ③ 동학 사상은 신분의 귀천과 위계를 부정하고 신분 평등을 주장한다.
- ④ 위정척사 사상은 남녀 차별이 사라진 평등 사회를 주장하지 않는다.
- ⑤ 위정척사 사상은 서양의 과학 문물을 사악한 것으로 보아 배척할 것을 주장한다.

04. 스피노자의 사상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의 사상가는 스피노자이다. 스피노자는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원인과 결과에 따라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다. 인간 또한 신 안에 있으며, 신 없이는 어떤 것도 존재할 수도, 인식될 수도 없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인간은 신 없이 존재할 수 없고, 스스로를 파악할 수도 없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① 스피노자는 인간은 자연의 인과 법칙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보았다.
- ② 스피노자는 각각의 모든 존재는 자신의 존재 안에서 존속하려는 욕구를 지닌다고 보았다.
- ④ 스피노자는 인간은 자신이 처한 감정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았다.
- ⑤ 스피노자는 신에 대한 직관적 인식은 인간에게 정신적 만족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

05. 제임스의 사상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의 강연자는 실용주의 사상가인 제임스이다. 그는 마치 현금처럼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용성을 지닌 가치(현금 가치)를 강조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신학적 교리는 형이상학적 해명 없이도 현금 가치를 지닐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① 제임스는 진리는 그 자체로서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에서의 현금 가치에 기초해 평가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③ 제임스는 자연 과학적 지식은 실생활에 유용하게 활용됨으로써 현금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 ④ 제임스는 관념이나 지식은 고정적 또는 불변적인 것이 아니라 실생활과의 연관 속에서 경험적 증명을 통해 가치를 지니게 된다고 보았다.
- ⑤ 제임스는 지식은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서 유용성 때문에 현금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06. 정약용의 사상 이해

정답 해설 : (가) 제시문의 사상가는 정약용이다. 그는 성리학의 인성론과 단서설을 비판하고, 성기호설에 기초해 단시설을 주장했다. (나)의 (A)에 들어갈 가로 열쇠의 용어는 '사성제'이고, (B)에 들어갈 가로 열쇠의 용어는 '도덕경'이다. 따라서 (A)의 세로 열쇠의 용어는 '사덕'이다. 정약용은 사덕(四德)은 사람이 자주지권을 갖고 사단(四端)을 실천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① 정약용은 인간을 도덕적 본성을 지닌 존재가 아니라 영지의 기호, 즉 도덕적 기호를 지닌 존재라고 보았다.
- ② 정약용은 인간과 동물이 모두 갖고 있는 욕구를 형구의 기호, 즉 생리적 욕구라고 보았다.
- ④ 정약용은 인의예지의 사덕은 도덕적 기호를 실천함으로써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 ⑤ 성리학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천리(天理)로서의 도덕적 본성을 주장한다.

07. 맹자와 순자의 사상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맹자, 을은 순자이다. 맹자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 즉 불인인지심(不忍人之心)을 하늘에 의해 태어나면서부터 지닌다고 보았다(ㄴ). 순자는 이익을 좋아하고 손해를 싫어하는 것을 인간의 본성으로 보았으며, 이 때문에 인위적 예에 의한 본성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한편, 순자는 재화의 공정한 분배가 예를 통해 가능하다고 보았다(ㄷ). **정답 ③**

[오답피하기]

- ㄱ. 맹자는 타고난 본성은 선하므로 이에 따른 행동이 악할 수 없으므로 선한 본성의 확충을 통한 대인의 이상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ㄴ. 순자는 예에 의한 교화를 강조했지만, 예를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08. 노자와 갈통의 사회 사상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노자, 을은 갈통이다. 노자는 무위(無爲)의 다스림과 소국과민의 자급자족하는 삶을 통해 평화 실현이 가능하다고 보았다(ㄱ). 갈통은 문화적 폭력은 종교·사상·언어·예술·법과 과학·대중매체와 교육 전반에 존재하면서 구조적, 직접적 폭력을 정당화한다고 보았다(ㄴ). **정답 ③**

[오답피하기]

- ㄷ. 갈통은 진정한 평화는 소극적 평화는 물론, 적극적 평화의 실현을 통해 가능하다고 보았다.

09. 소크라테스와 에피쿠로스의 사상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소크라테스, 을은 에피쿠로스이다. 소크라테스는 무지에 대한 자각을 통해 참된 지식을 추구할 것을 주장했으며, 또 지혜, 용기, 절제, 정의, 경건 등과 같은 덕은 상황이나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닌 보편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삶을 강조했다. 에피쿠로스는 행복의 시작과 끝은 쾌락이며, 우정을 나누는 정의로운 삶을 삶을 강조하는 한편, 절제, 정의, 명예, 지혜 등의 덕이 우리를 쾌락으로 이끈다고 보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소크라테스는 주지주의적 입장에서 도덕적 진리에 대한 탐구는 도덕성 함양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 ② 소크라테스는 덕은 시대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것이라고 보았다.
- ③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몸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으로부터의 자유로 정의했다.
- ④ 에피쿠로스는 참된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는 헛된 욕구를 자제하고, 자연적이며 필수적 욕구의 충족이 요구된다고 보았다.

10. 아우렐리우스와 아퀴나스의 사상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스토아학파의 아우렐리우스, 을은 중세의 아퀴나스이다. 아우렐리우스는 이성과 자연에 일치하는 삶이 곧 목적이며, 이것은 곧 덕에 따르는 삶이라고 보았다. 아퀴나스는 “좋음을 행하고, 나쁨을 피하라.”를 자연법 첫째 계율로 제시했으며, 자기 보존과 종족 번식은 인간과 동물에게 공통으로 해당하는 자연법에 속한다고 보았다(ㄷ). 또 아퀴나스는 인간은 이성을 통해 자연법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았다(ㄹ). **정답 ⑤**

[오답피하기]

- ㄱ. 아우렐리우스는 유덕자는 사건들이 우연적으로 진행되고 일어날 것을 바랄 수 없다고 보았다.
- ㄴ. 아우렐리우스는 유덕자는 자신의 행복이 아닌 타인의 행복만 바랄 뿐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11. 케인스, 하이에크, 마르크스의 사상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케인스, 을은 하이에크, 병은 마르크스이다. 케인스는 시장 경제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으로써 효율적 자원 분배에 실패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에 의한 투자의 사회화를 통해 유효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고 보았다. 하이에크는 자유와 경쟁을 보장하는 시장 경제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보았으며, 사회주의적 계획 경제는 이를 억압함으로써 인간을 노예의 길로 이끌게 된다고 보았다. 마르크스는 폭력 혁명에 의해 자본주의를 타도함으로써 계급과 소유, 국가가 없는 공산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이에크는 재화의 이상적 분배가 경쟁의 효율적 작동에 의해 가능하다고 보는 반면, 마르크스는 시장에서의 경쟁이 불

평등과 소외를 심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케인스는 정부에 의한 투자의 사회화를 통해 실업 문제 등 경기 침체를 극복해야 한다고 보았다.
- ② 케인스는 경기 침체와 실업 문제는 시장 경제의 결함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 ③ 마르크스는 계급 간 대립과 이에 따른 지배 계급의 피지배 계급에 대한 착취 구조는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심화된다고 주장했다.
- ⑤ 케인스는 수정 자본주의적 입장을 취하며, 개인의 자유 실현과 사유 재산제가 양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12. 칸트와 흄의 사상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칸트, 을은 흄이다. 칸트는 동정심처럼 인간의 경향성으로부터 나온 행위와,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과 의무 의식으로부터 나온 행위를 구분했으며,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만이 도덕적 의미를 지닌다고 보았다. 흄은 선악은 이성적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에 대해 느끼는 시인 또는 부인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았으며, 공통으로 느끼는 공감을 도덕의 기초로 삼았다. 그는 감정은 도덕적 실천을 위한 직접적 동기가 될 수 있는 반면, 이성 그렇지 못하다고 보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칸트는 동정심 또는 명예에 대한 경향성을 따르는 행위는 참된 도덕적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고 보았다.
- ② 칸트는 단지 의무와 일치하는 행위라는 것만으로 어떤 행위가 도덕적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③ 흄은 공감은 다른 사람의 불행과 행복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감정이며, 이러한 공감 능력이 도덕성의 기초가 된다고 보았다.
- ④ 흄은 우리가 느끼는 시인과 부인의 감정은 우리의 공통된 느낌으로서 사회적 감정이므로 사회적 이익 또는 사회적으로 유용한 감정이라 보았다.

13. 왕수인과 주희의 사상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왕수인, 을은 주희이다. 왕수인은 모든 사물의 이치는 마음 바깥에 존재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양지는 마음의 본체이자 하늘의 이치라고 주장했다. 주희는 성은 마음의 이(理)이고 정은 성의 활동이며, 마음은 성과 정을 주재한다고 주장했다. 또 성은 본체이고 그 작용은 정이라 보았다. 이에 따라 밖으로 드러난 감정으로 인해 그 본성이 마음에 있음을 알 수 있다고도 했다. 주희에게 이치는 만물을 낳는 근본 원리이고, 모든 사물에 내재한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① 왕수인은 지와 행은 본래 하나라는 지행합일을 강조했다.
- ② 왕수인은 양지를 발휘하며 인욕을 제거함으로써 천리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

④ 주희는 지와 행의 관계에 대해 선후(先後)와 경중(輕重)를 나누어야 하는데, 경중을 논하면 역행이 중하고, 선후를 논하면 치지가 먼저라고 주장했다.

⑤ 왕수인과 주희 모두 격물치지의 공부를 통해 도덕적 삶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4. 벌린과 폐팅의 사상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벌린, 을은 폐팅이다. 벌린은 ‘~로의 자유’, 즉 ‘자기 지배’로서의 자유인 적극적 자유와 ‘~으로부터의 자유’인 소극적 자유를 구분하고, 자유의 진정한 의미로 소극적 자유를 주장했다. 소극적 자유에 의하면, 시민의 덕성 함양을 위한 국가의 강제는 강제와 간섭에 속한다(ㄱ). 폐팅은 타인의 자의적 지배가 없는 상태인 ‘비지배 자유’를 강조했으며, 이를 위해 적절하게 제정된 법에 의한 지배가 자유 실현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ㄷ). **정답 ②**

[오답피하기]

ㄴ. 벌린은 불간섭의 영역이 확대될수록 자유의 영역 또한 확대된다고 보았다.

ㄹ. 벌린에 의하면, 진정한 자유는 소극적 자유이며, 자기 지배를 의미하는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것은 적극적 자유에 해당한다.

15. 의천과 지눌의 사상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의천, 을은 지눌이다. 의천은 경전 공부와 명상의 실천을 균형 있게 강조하는 교관겸수(敎觀兼修)를 주장했고(ㄱ), 지눌은 돈오점수(頓悟漸修), 즉 단박에 진리를 깨친 뒤에도 나쁜 습기를 점차 소멸시켜 나가는 수행을 주장했다(ㄷ). 또 점수의 구체적인 실천으로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는 정혜쌍수를 강조했다. 의천과 지눌 모두 자신의 깨달음과 함께 중생 구제에 힘써야 한다고 보았다(ㄹ). **정답 ④**

[오답피하기]

ㄴ. 지눌은 모든 현상이 마음 밖의 진리에 의해 일어난다고 보지 않았다.

16. 이황과 이이의 사상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이황, 을은 이이다. 이황은 사단은 이(理)에 근원해 드러난 순전한 감정이고, 칠정은 기(氣)에 근원해 드러난 선악의 가능성이 있는 감정이라고 보았다. 이이는 사단은 이가 맑은 기를 타서 천리가 그대로 드러난 순전한 감정이라고 보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이황과 이이 모두 성발위정(性發爲情)을 인정했다.

② 이황과 이이 모두 이와 기의 관계에서 이의 주재(主宰)적 속성을 인정했다.

③ 이황과 이이 모두 칠정은 기가 발할 때 이가 타서 표출된 감정임을 인정했다.

⑤ 이이는 ‘기발이승일도설’만을 인정했으며, 칠정이 사리에 합당하게, 즉 본래적 선

을 발현하는 방식으로 적절하게 표출될 때, 그것을 사단이라 한다고 주장했다.

17.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으로 보았으며, 인간의 고유한 덕에 따르는 최고의 활동을 관조적 활동으로 보았다. 또 영혼의 이성적인 부분과 관련된 덕으로 철학적 지혜와 실천적 지혜를 구분해 제시했고, 영혼의 감정이나 욕구 부분과 관련된 덕으로 품성적 덕을 제시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고유한 덕에 따르는 최고의 활동을 관조적 활동으로 보았으며, 이것을 철학적 지혜로 제시했다.
- ②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으로 보았지만, 이성이 목표로 삼는 유일한 선이라고 보지는 않았다.
- ③ 아리스토텔레스는 영혼의 비이성적인 부분이 항상 영혼의 이성적인 부분에 순응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④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으로 보았으므로 덕의 발휘 없이 덕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곧 행복일 수 있다고 보지는 않았다.

18. 장자의 사상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은 장자의 입장이다. 장자는 지극한 사람[至人]은 자기중심적 사유에서 벗어나 있으며, 성인(聖人)은 세속적 명예에 개의치 않는 삶을 살아간다고 보았다. 그는 이러한 이상적 인간이 되기 위한 수양 방법으로 자기를 구속하는 일체의 것을 잊음[忘](亡), 그리고 마음을 비워 깨끗하게 하는 심재(心齋), 즉 정신적 자유의 무한한 경지에서 노닐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ㄱ). **정답 ①**

[오답피하기]

- ㄷ. 장자는 세속을 벗어난 정신적 자유의 경지를 강조했지만, 천명(天命)을 도덕성의 원천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 ㄹ. 장자는 도(道)의 관점에서 만물은 평등하며, 선악, 미추, 자타의 분별은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으므로 만물에 대해 우열을 판별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19. 트라시마코스과 플라톤의 사상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트라시마코스, 을은 플라톤이다. 트라시마코스는 정의를 강자의 이익이라 보았기 때문에 피지배자에게 부정의한 행위는 피지배자 자신에게 이로울 수 있다(ㄴ). 플라톤은 개인의 정의란 영혼의 내적 조화와 관련되며, 영혼의 각 부분이 각각에 해당하는 덕을 갖추어 조화를 이룬 상태라고 보았다. 또 그는 피지배자의 부정의한 행위는 그 자신에게 정의롭지 못하다고 보았다(ㄷ). **정답 ②**

[오답피하기]

ㄱ. 트라시마코스과 플라톤 모두 한 국가의 정의는 누가 지배자가 되느냐의 문제와 분리될 수 없다고 보았다.

ㄴ. 플라톤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은 정의로운 행위의 동기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20. 벤담과 밀의 사상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벤담, 을은 밀이다. 벤담은 쾌락에는 질적 차이가 없고 양적 차이만 있다고 보았고, 쾌락의 양을 계산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기준으로 강도, 지속성, 확실성, 근접성, 다산성, 순수성, 범위 등을 제시했다. 반면, 밀은 쾌락에는 질적 차이가 있으며, 교양을 갖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질적으로 높고 고상한 쾌락을 추구할 것이라고 보았다. 밀은 벤담에 비해 상대적으로 “쾌락에 질적 위계가 있음을 강조하는 정도(X)”가 높고, “쾌락 추구자의 내적 교양을 강조하는 정도(Y)” 또한 높다. 반면, “쾌락에 양적 차이만 있음을 강조하는 정도(Z)”는 벤담보다 낮다. 따라서 ㉠이 적절하다.

정답 ⑤